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 한국에서 변호사 선임하다 한화 2천만원 사기당해

### 전문가와 상담하고 국제적인 법률 협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해야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재한 외국인이 가담한 범죄사건은 총 3만 3,052건으로 1,893명 범죄의자가 구속됐다.

한국에서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에 체포되면 한국인이든 재한 외국인이든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도움을 받고자 한다. 가령 범죄에 연루되거나 심지어 가담했다 하더라도 자신을 위해 변호하는 것은 법률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과 절차를 잘 모르면 지인의 소개나 온라인 광고를 통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자칫하면 불량 변호사를 찾거나 심지어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 비용 등 병의로 거금을 사기당할 수도 있다.

국내에 거주중인 원씨는 한국 경찰에 체포·구속된 사촌동생 변호 비용으로 한국에 있는 지인 재한 조진석 리씨에게 2,000만원(한화, 이하 동일)을 입금했다가 사기당했다. 원씨가 중국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에 도움을 청한 결과 법정 공방을 거쳐 사기당한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았다.

사연은 이러했다. 2023년 6월, 원고 원씨는 사촌동생이 사기 혐의로 한국 경찰에 체포·구속되자 한국에 있는 지인인 피고 리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줄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피고 리씨는 변호사 비용 및 피해자와의 합의금 명목으로 약 2,000만원을 요구했고 원고 원씨는 두말없이 피고 리씨가 지정한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

그러나 1심 판결 당시, 원고 원씨는 법정에서 판결 내용을 듣고서야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단 200만원만 지급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담당 변호사에게 문외한 결과 변호사비용은 약 500만원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 원씨는 피고 리씨에게 지급한 비용의 사용 내역을 요청했으나 피고 리씨는 사건 벌금으로 800만원을 사용했고 사건 담당 검사를 만나 술을 마시며 사건 해결을 부탁하는 데 돈을 썼다고 해명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던 원고 원씨는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원고 원씨의 위임을 받아 한국에 거주중인 중국 조진석 피고 리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4년 4월 23일 선고한 판결문에서 “피고가 지급받은 금액을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주장의 지출 또는 지출 예정 내역(구치소

에 있는 원고의 사촌동생에게 지급한 생활비 한국 원화 50만원, 관련 형사 사건에 선임된 변호인에게 지급한 대납 벌금 한국 원화 800만원, 피고와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입사무처리비용의 반환으로서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외에 나머지 금액 한국 원화 1,290여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4월 17일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의 판결 이후,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피고 리씨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했고 지난 8월, 강력한 법적 조치 끝에 피고 리씨는 결국 원고 원씨에게 모든 돈을 반환했다.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 범죄에 연루되어 체포·구속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사기당할 위험이 있다. 한국 변호사법에 따르면 한국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사건을 제3자에게 소개하거나 변호사사무실인 것처럼 가짜 사무실을 운영하며 법률상담후 돈을 받고 사건을 제3자에게 넘길 경우, 변호사법 제 109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되어있다. 최근 한국 변호사 행세를 하고 가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재한 중국인의 돈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재한 중국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한국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상담자가 실제 한국 변호사인지, 방문한 사무실이 법무부 허가를 받은 변호사사무실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사건처럼 돈을 사기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국가의 법률 체계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률 절차는 복잡하며 각국의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국제적인 법률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법적 분쟁에 직면했을 때는 지체없이 한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경봉기자

연계전화 : 13604447151

## 길림성, 국경절 연휴 치안질서 량호

8일, 길림성공안청에 따르면 국경절 기간, 길림성 공안기관은 공안부와 성당위, 성정부의 정책 결정과 포치를 견결히 관철하고 위험방지, 안전보장, 안정수호 등 제반 사업을 엄격하고 세밀하게 실시하여 일련의 경색활동의 순조로운 전개와 인민대중이 즐겁게 휴가를 보낼 수 있는 평온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연휴 기간, 전 성 사회치안은 지속적으로 안정되고 도로교통이 원활하고 중점관리지역이 질서 정연했으며 중대사건과 공공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국경절 연휴에는 군중들의 여행 열풍이 강렬했으나 인파와 차량 흐름이 집중되고 대형 행사가 밀집되었다. 명절을 앞두고 성공안청은 정밀한 연구를 거쳐 사업방안을 제정하고 책임분공을 세분화하여 제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실시되도록 확보했다.

전 성 각급 공안기관은 사회면 협동관리체계의 새로운 기제에 의탁해 공안기관과 무장경찰부대의 련합근무 등 '네가지 기제'와 '1, 3, 5'관 지원 경찰을 동원해 변화 상권, 관광, 왕흥명승지 등 중점 장소와 인원 밀집 장소를 둘러싸고 순찰에 방통제를 강화했다. 하루 평균 연 1

만 8,000명 경찰과 6,000여대 차량을 출동시켜 '절도, 강탈, 사기', '음란물 유통, 도박, 마약' 등과 같은 심각한 치안문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경찰 신고률과 단속률을 효과적으로 높였다.

연휴 기간, 인원 류동이 크고 차량 출력이 증가하는 교통 특성에 근거해 전 성 교통경찰부서는 도로교통 안전 관리를 확실하게 강화하고 고속도로, 관광로선, 국가 간선도로와 성 간선도로, 향촌도로 등 중점 구간을 둘러싸고 진입도로, 고속도로 출입구 등 중점 장소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했는데 하루 평균 연 1만 3,000명 교통경찰과 5,000여대 차량을 출동시켜 대규모 교통체증의 발생을 미연에 막았다. 동시에 각지 공안기관은 전 성 대형 군중성 행사에 미리 개입하여 안전관리 책임과 안보 조치를 락착하도록 주축을 독촉했다.

장춘, 연길, 장백산, 매허구 등 관광 인기 도시와 인기 관광지들에 대한 질서 유지와 분류 소탕을 강화해 불미스러운 사고와 다치는 등 치안 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전 성 '9개 작은 장소' 특히 물, 전기, 기름, 가스, 열 공급 등 중점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순찰조사를 전개하여 법률법규 위반행위와 안전 위험을 제때에 시정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오건기자

통화현공안국

## 돈세탁범죄 타격해 경제사회발전 수호

올 들어 통화현공안국은 새로운 안전 구도 구축과 새로운 발전 구도 보장을 틀어쥐고 돈세탁 분야의 범죄를 예방하고 타격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경제범죄 발생률을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시키고 사건 해명률을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시킴으로써 경제와 사회 안정을 유력하게 수호했다.

중점을 내세우고 난제를 깊이있게 해결하여 돈세탁범죄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통화현공안국 경제범죄수사부서는 돈세탁범죄 단속을 추진하고 돈세탁범죄 단속 특별행동을 깊이있게 전개하여 돈세탁사건에 대한 수사처리, 단서확장 및 단속 효과의 일체화 업무 방식을 보완하고 의법타격, 사회선전, 전력향상의 '3가지 동시화'를 견지했다. 또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하은행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타격과 돈세탁 관련 사건 해명을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공안부와 성공안청, 시공안국의 포치 요구에 따라 단서 발굴, 체인타격 업무를 적극 추진했다.

선전과 전연 관리를 강화하여 돈세탁범죄를 일으키는 '온상'을 깨끗이 제거했다. 통화현공안국 경제범죄수사부서는 련석제도를 부단히 보완하고 경찰과 은행의 협력, 경찰과 기업의 협력 등 업무기제를 심화시켰다. 금년이래 여러 대형 은행과 기업에 심입해 부서 책임자와 은행기업 종업원들에게 50여회의 상시화, 정밀화 돈세탁 위험 예방통제, 선전교육 등 씨

비스를 제공했다. '5.15' 경찰수사 홍보의 날 활동을 상시화하여 매달 한번씩 방문조사연구, 홍보자료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거리나 점포, 농촌 시장에 들어가 대중들에게 사건 설명을 통해 돈세탁범죄의 사회적 위해성과 범죄로 인한 손실에 대해 설명했다. '위책 매트릭스'에 의탁하고 인터넷 매체의 전파 우세를 빌어 최신 경제범죄 방법 지식과 조기경보정보 50여건을 발표했다.

학습과 훈련을 결부시키고 훈련으로 일을 다그치며 강력한 경제범죄 정찰대조를 전력 구축했다. 통화현공안국은 전통적인 장벽을 타파하고 '1명의 대대 지도자 + 1명의 데이터 연구·판단 전문가 + n명의 수사 경찰'의 배치에 따라 돈세탁 관련 범죄를 단속하는 데 '새로운 역량'을 제공했다. 경제수사 경찰의 우세와 효능을 충분히 발휘시켜 자금 심사, 단서 발굴, 전방 체인 단속 등 합체적인 작전 방식을 사용하여 정보와 건설의 대치 기반을 튼튼히 다졌다. 아울러 골간들을 조직하여 통화시공안국에 가서 단련하고 경험을 습득하였으며 신형적이고 어려운 경제사건에 대한 법률 인식 연구 및 처리 기술과 전법 교류를 전개했다. 상급 경제범죄수사부문을 초청하여 방문 강의를 하는 등 형식을 통하여 인민경찰의 신경영태, 신경제 등 관련 전문지식 비축을 높이고 전문화된 경제범죄 수사대조를 힘써 구축했다. /길림일보

## 연변 공안, 국경절 기간 사회치안 안정에 만전 기해

국경절 연휴 기간, 연변 공안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대중들의 사회안정과 경제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연휴 기간 연변은 중대한 교통,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회치안 질서가 량호했으며 여러 민족 대중들이 즐겁고 조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연휴를 보냈다.

예방통제를 강화해 전반적인 치안안정 유지

연변 공안은 사회면 협력통제기제를 기반으로 거리경찰소, 이동경무실, 공안 및 특수 경찰 합동순찰기제를 전면 가동하고 신속대응 기제를 엄격히 시달함과 아울러 경찰 투입을 늘려 일평균 순찰 경찰 92팀에 1,100여명, 차량 320대를 파견해 강력한 진압 효과를 형성했다. 또한 110명 경찰을 파견하여 연길 시내 순라예방 행동에 참가시켰다.

연길 도시구역의 당정기관, 인구 밀집 장소, 변화 상권, 인터넷 인기 핫플레이스 등 중점지역에 일간근무소와 야간근무소를 추가 설치해 돌발성 사건을 빠르게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대중, 관광객들의 도움과 자문을 접수함으로써 순찰 구간의 량호한 치안 환경과 원활한 교통환경을 담보해 연변 공안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줬다.

안전우환 점검 강화하고 공공안전 감독 실시



풍경구에서 관광객들의 의문에 해답을 주고 있는 당직경찰

연변 공안은 응급처치, 우편, 교육, 문화관광 등 부문과 함께 민용 폭발물과 위험 화학품, 배송 및 물류, 학교와 병원, 중점 풍경구, 중점 업종 단위에 대한 안전 감독을 실시하고 관련 단위의 실질적인 주체책임 리행을 강화했다. 또한 소방부문과 함께 '9가지 작은 장소'에 대한 선전교양과 감독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중대한 공공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했다.

국경절 기간 연변은 루계로 2,196곳을 검사, 1,136곳의 중점 부위를 순찰했으며 109곳의 안전우환을 조사, 시

정하고 26곳의 문제를 시정하도록 독촉했다.

교통관리 강화해 교통 안전과 원활 보장

연변 공안 교통경찰부서는 G302, G331, G333 등 15갈래 국도, 성도 국경절 연휴 통행 특성에 따라 과학적으로 경찰을 조정하고 근무 배치를 최적화했다. 중점시간대에 사고 다발 구간에 심입해 순찰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대형 차량의 안전 출행을 담보했다. 또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다섯

개 구간에 교통 표시선, 안내 표시판을 설치해 안전경고와 우환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했다.

국경절 기간 연변 공안 교통경찰부서는 루계로 경찰 7,000여명, 경찰차 1,100여대를 출동하고 교통집중소 16곳을 가동했으며 름시근무소 40곳을 설치하고 로선 운행 려객수송 기업 49곳, 관광객 운송 기업 11곳을 찾아 중점 차량 2,000여대를 검사했다.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대중들이 출행 시간, 로선 및 이동 방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고봉시간대를 피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환경을 구축했다.

풍경구 안전 수호 강화해 관광객 여행 안전 담보

연변 공안은 연변 관광경제 발전의 전반 국면에 입각해 관광객들에게서 발생하는 문제와 돌발 상황을 신속히 처리했다. 중국조선족민속원과 연변대학 '인터넷 왕흥벽' 등 중점 풍경구 부근의 안전 수호에 중점을 두고 풍경구 관리부문과 함께 관광객 안내 및 풍경구 질서 유지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고 관광객과 대중들의 안전을 수호함으로써 우수한 경무 봉사로 관광객의 안전감과 만족도를 제고시켰다. /리전기자



## 장백변경관리대대

### 훈련 통해 경찰들 실전 기능 제고

국경절 연휴 기간, 장백변경관리대대는 경찰들의 일터 문화지식과 실천 기능을 한층 더 제고하고 집법 능력과 돌발성 응급처리 능력을 부단히 제고하고자 여러 향진 변경파출소와 변방검사소를 단위로 당건설동맹성원 단위를 맺고 2024년도 가을철 대련병 및 경무 실전 기능 제고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 과정에 경무 실전 코치들은 '실제에 결부하고 실전에 적응하며 실제 효익을 보는' 원칙을 주제로 리론해

설, 동작시범, 분조조작 등 교수방법을 통해 경찰들에게 어떻게 상용 경무 사설을 정확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내용이 풍부하고 실용성이 강했으나 광범한 경찰들의 투자를 고무하고 경찰들의 실천 능력이 현저한 제고를 가져오게 해 상급 해당 부문의 호평을 받았다.

/장원수(張元首), 최창남



실전 기능 제고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장민

## 시례로 법 밑이기-4

###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는가?

사례	법률해석
소명과 소송은 한쌍의 신혼부부이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송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소송이 의외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생전에 어떠한 유서도 남기지 못했다. 아이는 소송이 세상을 떠난 뒤에 태어났다. 소송이 세상을 뜨기 전에 태어났던 아이가 상속권을 향유할 수 있는가?	태아에게는 상속권이 있다. 민법 제 16조 규정에 따르면 유산상속, 증여접수 등과 관련된 태아의 리익은 보호를 받는다 태아가 민사권리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태아를 분만했을 때 사체이면 민사 권리와 능력이 그때로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인민넷-조문판